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高有峰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金炳成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5-6156 (교) 55-6141

제395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0년 6월 5일 화요일

1

기획실 설치규정안 확정 공포 학술홍보·대학발전 계획 수립등 전담

기획위원회는 20인이내 교직원으로 구성

본교 발전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을 전담하게 될 기획실(실장: 夫萬根 基)의 설치 규정안이 평의원회·규정 심의위원회 및 학·처장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확정·공포됐다.

본교 규칙 제173호로 발표된 기획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 기획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발전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대학운영의 평가
3. 국제학술교류
4. 학술홍보
5.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및관리
6. 기타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사항

▲설치와 구성

1. 총장 밑에 기획실을 둔다.
2. 기획실에 실장을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실장

1.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실장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

1. 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기획위원회

1. 기획실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본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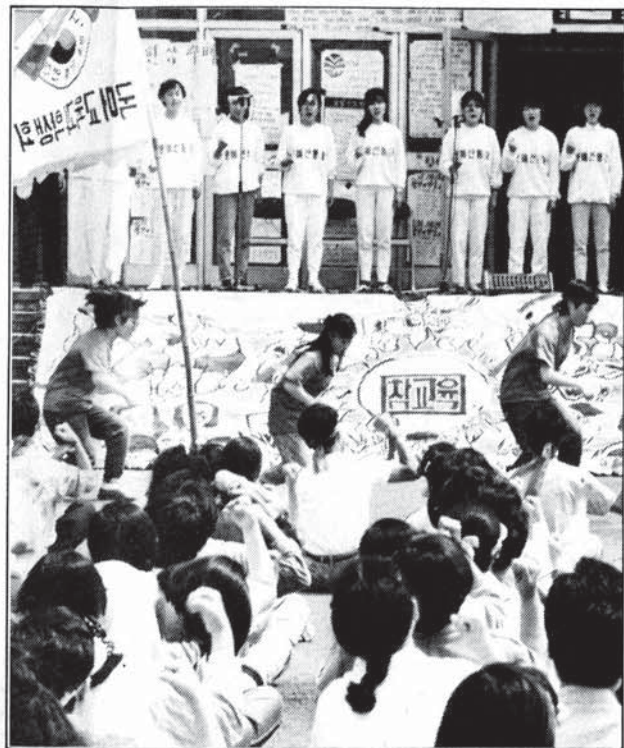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효재교수 초청강연
오는 8일 중강당서
「여성학의 이해」라는 제목의 여성학강좌(강사: 이효재·前이화

여대교수)가 총학생회(회장: 고영희·사학4) 주최, 학생생활연구소(소장: 李淳祐 교수·교육학)·가정관리학과(학과장: 金良順 교수·아동학)후원으로 오는 8일 2시 2등 중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여성학 강좌에서는 인간 사회속에서 여성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왜 여성이 차별과 억압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요이론 설명과 더불어 한국여성의 현실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여성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전교조결성 1주년을 맞아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참교육 합법성 정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기말고사 19일부터 7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 접수

'90학년도 제 1학기 기말시험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수업과에 따르면 이번 기말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시험장소에서 반드시 학생증을 감독교사에게 제시해야 하며 시험중 부정행위자는 학칙 제69조를 적용,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 기간동안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서 및 시험연기원을 오는 21일 이전까지 소속대학 교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업과에서는 전산처리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제2학기 수강신청을 오는 7일까지(공휴일 제외) 마쳐줄것을 바라고 있다.

본교팀 종합 3위 제18회 전국 국립대 체전서

「제18회 전국 국립대학 체육대회」에서 본교팀이 경상대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과 2일 일일간 충북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본교 육상팀의 홍용수(체교·4) 학우는 5천m와 1만m에서 2위를 차지, 이대희 3년연속 메달 진입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의 입상전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천m 2위=홍용수(체교·4)
▲ 1천5백m 4위=김진일(체육·1)
▲ 1만m 2위=홍용수(체교·4)
▲ 3위=오현석(체육·1)
▲ 1백10m 허들 3위=곽동원(체교·3)

▲ 4백m 허들 4위=임관철(체육·1)
▲ 축구=3위

제18회 濟大美展
14일까지 문예회관서

제18회 제대미전이 미술학과(학회장: 유창훈·3)주관하에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작품 전시회에는 고문산(4년)학우의 「休」를 비롯한 풍양화 40점, 부영아(4년)학우의 「회상」를 비롯한 서양화 53점, 양정윤(2년)학우의 「여인」을 비롯한 조소 33점, 문경원(4년)학우의 응용미술 작품등 총 1백30여점이 선보이게 된다.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전교조결성 1주년... 「참교육」결의다져

「전교조 합법성 정취와 교육운동」을 주제로 한 결의대회」가 지난달 28일 3백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민주관강당에서 열렸다.

전교조 결성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범대학생회(회장: 김권호·과교4)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문화원(부회장·국교3) 학우는 기초발표를 통해 「정부당국은 40년 교육동지들의 투쟁을 막기위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전교조는 참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러한 탄압을 뚫아내어내고 이제 결성 1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다시금 전교조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용중(체교·조지부장·前신성여교 교사)씨등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3명이 참가했는데, 이용중씨는 전교조 결성 선언문 낭독을 통해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파벌적 교육여건은 수십년간 군사독재를 거쳐서 결구적으로 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외면해 왔다」며 향후투쟁에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우들은 성명서를 통해 「1천5백명

의 교사들을 강제해직시키며 교육현실을 지탱해 온 정권은 이번 공세와 여론조작으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을 「탈경이 교육」이라고 매도하는 등 궤변을 내세우면서 전교조와의 진정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제후 「교육은 정권의 시녀일 수 없으며 더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고, 온 국민에게 확인된 전교조 합법성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쟁취해 내야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權不十年이요 花茂는 十日紅이라」

「權不十年이요 花茂는 十日紅이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못가고 활짝 핀 꽃도 10일을 못넘긴다는 말이다.

바로 요즘 정권이 그렇고 사회가 그러하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소수 정치인들이 활기치는 세상이니 정부라고 사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전·월세값이 올라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가 하면 부동산투기는 날로 극심해지고 생활품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어수선한 정세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KBS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현정세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초래하자 盧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경제특별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이러한 정세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을 내렸으나, 재벌들이 팔려고 내놓는 땅

가운데 알자는 다치고 못쓰는 폐광이나 야산뿐이라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하다.

이무리 돈과 권력이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한다 하지만 자본이 권력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사회는 돈의 힘이 일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그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통치수단과 체제술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재벌의 비법무용 토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구속소련 이문록 감사관을 봐도 그렇다. 李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이때까지 성역처럼 여겨졌던 재벌의 부당한 투기, 재벌과 권력의 유착에 따른 비리들이 얹혀있다.

예컨대, 李감사관이 폭로한 23개 재벌기업의 비법무용 부동산 소유비율은 43.3%인 반면 은행감독원에서는 재벌기업이 1.2%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가짜는 개런일이 분명해 이상 우리는 李감사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문제는 盧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는 재벌기업도 관련돼 있어 6공화국 정권의 도덕적 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정과 결말이아 어찌됐건 李감사관의 구속은 오늘의 정치판을 가늠케 한다.

감사관은 감사의 고유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감사대상을 불문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권력에 굴복해 비리를 비호하는 이가 많다는 사실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 나라는 소수 상류계층의 기득권 다름과 독점자본의 손에 놀아나야 하는 것인가.

李감사관의 구속은 개인적 억압이 될 수는 있어도 4천만 국민의 가슴과 의식을 여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盧대통령이 일전에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는 말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될려면 황희정승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 이문록감사관은 기소유예로 석방해서는 안된다. 법집행자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더이상 바론말·바론행위를 하는 사람이 무고한 희생을 당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龍】

대학원장등 새로 임명

대학원장에 朴良門 교수
외국어교육관장에 梁宇鎭 교수



제6대 대학원장에 朴良門(농학과·사진左)교수가 지난 1일자로 임명됐다.

새로 임명된 대학원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60년 서울대 농학과 졸업
△ 80년 동아대 대학원 농학박사
△ 86년 농과대학장
△ 89년 평의원회의장



梁宇鎭(영문학과·사진右)교수가 지난 1일자로 앞으로 신축될 외국어교육관 관장에 임명됐다.

신임 외국어교육관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65년 제주대 영문학과 졸업
△ 83년 하버드대학 대학원 언어학 과정 수료
△ 85년 중앙도서관장
△ 87년 인문대학장

기숙사 사생 모집

본교 기숙사에서는 2학기 기숙사생 2백14명을 모집하기 위해 기숙사 입학희망자 신청접수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

2학기 기숙사 입사 희망자는 당기간에 기숙사 소청양식에 의거, 입사원서·성적증명서(1학년 제외)·교수추천서·사진 4매를 기숙사 관리 사무실로 제출해



개교 38주년,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濟州의 象牙塔

濟州大學校 開校 38周年과,
濟大新聞 創刊 36周年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漢拏日報社

제주시 삼도 1동 568-1
대표전화: 50-2114, FAX: 52-9790

社説

大學의 本質을 찾아
-아라촉전 행사를 보고나서

대학축제는 미명히 젊음의 지성과 낭만을 펼치는 대학문화의 꽃이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5월이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바치면서 치르는 아라촉전 행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의 문제점은 우리의 아라촉전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대학의 행사치고는 학술적인 내용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몇몇 학과나 씨름에서 마련한 전시회나 발표회를 제외하면 대학생들의 왕성한 학구열과 자기확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학술 및 교양강연이나 토론회같은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음이 사실이다. 물론, 지식의 전수라는 대학의 기본기능은 일년중 쉬지 않고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터에 불과 3-4일정도 축제기간에까지 사실 인식의 중압감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활용하는 주체적인 가치관의 정립인 것이며,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의 폐쇄회로적인 지식습득의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논쟁이 용납되는 강연회나 토론회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기본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식의 홍수 속에서 더욱 요청되는 냉철한 비판력과 폭넓은 안목을 대학의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의 아라촉전 행사에는 이같은 내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두번째의 문제점은 아라촉전 행사중에서 비교적 지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의 것들도 너무 눈앞의 현실에 치중되어 있고, 현실문제에 접근하는 학생들의 시각도 너무 편파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요즘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운동 문제와 맞물려 있지만, 정치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환희와 환상은 이제 심각히 반성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축제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인도했던 그 격렬한 어조의 구호와 집회와 마당극등을 개관해 보면, 그 대체적인 분위기는 역사는 길고 인생의 폭은 넓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백보 양보해서, 눈앞의 현실문제가 다급한데 어떻게 태평스럽게 고전극을 상연하고 남만주의 문화강연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수긍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현실의식

은 너무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에 정권안보적 성격이 많았다고 하여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비인간성까지도 합리화될 수는 없고, 역대 반공정권의 좌익매도 정책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여 4·3 사건 당시 좌익세력에 의한 제주도민 수난의 역사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재벌집단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옳은 것이라고 하여 파괴적인 노동자 파업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성격이 복잡적이고 해답의 성격 또한 유보적·조간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집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얼마나 허용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들은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에 가세하는 젊은 열기와 정의감을 잠시 유보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참교육일런지에 대해 교육철학적·교육사회학적인 찬반 토론을 벌여 본일이 몇번이나 되며,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하와이형 관광개발 모델에 대한 연주소사를 얼마나 쏟고 나서 <결사적인> 반대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있는가. 경주의 대학생 데모와 대자보가 기존체제의 <正>에 대한 <反>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제주대학교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경축하는 연례적인 개교기념 행사에서인이라도 여기에서 진일보한 <舍>의 단계를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독재정권의 건강부회적인 감압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시킨 지적 균형의 파괴를 자각하는 일은 우리 대학사회에 맡겨진 중대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충정과 정의감은 소중한 것임이 틀림없고, 과거에 학생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바 컸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는 바, 대학축제를 비롯한 캠퍼스 전반의 풍경은 총체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할 대학문화의 발전이 부족한 지적정점에 예측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파괴적이고 흑백논리적인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의감과 애국심 자체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인정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시사적인 문제가 아무리 다급한 것이어도, 전체적 세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대학기능의 정상 가동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다. 총론적 지식의 미비상태에서 균형상실적으로 습득되는 각론적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 일대 경각심이 요청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최후의 발악(?)

「성선설」은 맹자가, 「성악설」은 순자가 각각 주장한 도덕설이다. 이 두가지 도덕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불법시위 주동자 수배」. 이것은 제주도 경찰국에서 경찰국 주변, 터미널이나 각 동사무소에 부착한 수배자 전단이다. 그렇다. 수배자 전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복제하는 곳이라야 전지전통(?)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총학생회장을 비롯 총부학생회장, 동연회장, 민화특위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주소, 본적, 때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가 기록돼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학원집합에 이어 43명의 학우들에게 검거령을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범죄자들에게나 할 수 있는 수배자 전단까

지 부착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정 사람을 필요로 하고 물건을 훔쳐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시대의 아픔을 남보다 더 느낀 것이 그렇게는 잘못이 아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필요이자 희생양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까지 학생들에 대해 범죄자들과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은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경찰국국의 최후의 발악처럼 보인다. 「내회들도 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한. 굳이 적용을 해 본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나쁜놈들은 우리의 학우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더욱 깨어날 수 있는 「성악설」을 재현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현정권을 위한 「성선설」에 열연하는 배우임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甲】

제18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더 늦기전에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자



吳潤根

인간이 깨끗한 물과 맑은공기를 마시며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권리를 환경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생활환경은 인간의 중요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며 보다 좋은 환경을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일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부가된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고도화, 정보화로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양상은 다양화, 다량화되고 더욱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의 환경오염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인류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단하나 뿐인 지구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시켜 자연생태계의 조화를 혼란시킴으로써 인간은 물론 지구촌의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들에서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산성비로 인한 세계 도처에서의 숲의 고사(枯死), 호소의 산성화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파괴 현상, 열대우림의 감소, 토양의 산성화와 사막화 현상,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이황화수소 오염의 심화와 탄산가스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해수면의 상승위험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인 문제

가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인도 포팔시의 대형 독가스 누출사고와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비록 우발적이고 짧은 시간동안의 사고에 의한 오염이라 할지라도 환경오염현상이 얼마나 위험하며 원상 회복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건강피해 등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제사회발전을 저해시키게 된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쏟는 노력과 투자가는 비용 또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등은 결코 비생산적인 투자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의 성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조망해 볼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은 사후복원 대책보다 사전예방 대책이라 하겠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

장났고 공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공장이 없으며,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자연정화 능력이 커서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안된 지역이라고 믿어 왔으나, 최근 환경관계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66ppm으로써 생활환경 기준치인 10ppm을 6.6배나 초과하여 심한 오염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안해역도 해역별 수질 기준에는 아직 미달하나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다. 또한 쓰레기의 배출량도 매년 증가하여 1일 배출량이 평균(89년도) 689톤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도내 12군데의 매립장에서 거의 전량 매립처분하고 있으나 각 매립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쓰레기와 같은 고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토에도 점차 환경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또한 무분별하고 편익주의적인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수려한 관광명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에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환경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본도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환경 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본도를 특별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해 유발공간의 건설을 규제하고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규제하며, 또한 전해역을 청정해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무공해 자동차로 점차 교체해 나가며 정화한 환경오염조사와 감시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이를 위하여 전도민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와 함께 농약과 비닐, 플라스틱등 잔류성이 큰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이의 사용량을 규제하고 잔류성이 적고 생분해가 되는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도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어릴때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환경보전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해물질의 배출량 감소와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재생이 용이하도록 새, 삼주등의 공해유발물질의 사용량을 규제하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오지의 등산로 사용 금지와 방목제한, 야영장 제한, 야적 채취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또한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스스로 치우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자연환경보존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우리모두가 환경오염의 감시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당대는 물론, 다음세대에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주도의 조남정신을 살려 적적하고 아늑한 정락정신이 환경보전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도민모두가 피수인이 되어 본토에서 제정된 지역환경기준에 의거하여 항상 감시하고 보호할수 있는 풍토를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은 21세기를 내다보는 대망의 90년대에 전도민이 공동책임자로서 인식을 같이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해양환경공학과 조교수

도서관은 놀이터가 아님을 명심하자

“길길길길” “오하하하” 아니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한낮에 도서관에서.

사방을 둘러 보았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공본만 하고 있다. 열람실 밖으로 나오보았다. 그랬더니 뿔뿔하고 방안에도 없는 도깨비들이 휴게실의 자에 앉아 한심하게 떠들고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될 만한 행동인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대학의 휴게실도 조용한 휴게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대학 도서관은 모두 큰크리프트 건물이라 작은 소리에도 크게 울리게 돼있다. 그 떠드는 예를 들면 복도 휴게실에서 웃기 시작하여 열람실까지 와서도 길 길며 웃지않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내지않나. 그리고 열람실에서 구두소리를 크게내며 두번 두번 걸지않나. 꼭 자기 구두를 자랑하는 것 같다. 이 모든 행동이 지성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다. 머군다나 졸업을 앞둔 형님이나 누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마 안타까

독자의소리

濟大新報는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은 일이 아닐수 없다. 그토록 오랫동안 대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공부에 열중하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과 담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휴관 밖에 나가 떠돌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면 지는 것이지 하릴 조용한 공부하는 곳까지 떠드는 소리가 들리게끔 해야 하는가. 이제 여름이 오면 열람실문을 열어놓는 채 공부하게 될텐데 떠드는 소리가 더 커질까 걱정이된다. 제대인 여러분 조용히 떠들시라.

<양재혁·수외2>

최소한의 예의범절 서로 지키며 살자

지성인.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을 가리켜 흔히 '지성인'이라는 말로써 통칭(?)해주고 있는 것 같다. 대학에 들어온지도 3개월이라

는 시간이 지나갔다. 3개월동안 우리 아라골의 신입생들은 지성인의 자각으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공감했을까?

대학이란 곳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다.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사탐함을 찾기 위해.....

요전에 한 학생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못참을 것 같아 강의실을 몰래 빠져 나가려는 것을 교수님에게 들켜버렸다. 그 교수님의 노여움은 말이 아니었다. 다른 분이있

다해도 그랬을 것이지만, 일차적인 잘못은 그 학생에게 있다. 그러나 교수님의 후에 행동 역시 문제가 되었다. 다시는 강의를 안하시겠다며 나가버리신 그 모습. 과연 우리를 지성인으로 보는 것이며, 교수님의 행동 또한 지성인으로서 마땅한 것이었을까? 물론 그렇게 나가려던 그 학생도 완전한 지성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강의라는 것은 교수와 학생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업방식이다. 옛말에 易地皆然라는 말이 있다.

아직은 지성적으로 덜 익은 우리들이지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지사지'의 태도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강준희·무역1>

비문화적 생활습관 나부터 버리자

우리학교 각 건물내에는 자동판매기가 최소한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있다. 자동판매기의 편리한 특성때문에 학우들은 자동판매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컵의 처리이다. 대개의 경우 쓰레기통에 버려지지만, 어떤 경우는 길거리나 잔디밭은 물론, 심지어 강의실까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현문·법1>

창공에 펼쳐지는 당신의 미래

操縱 訓練生 募集



募集人員 및 應試資格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공학과
45 50명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자가용조종사 면장 소지자는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199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병역을 필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나안 시력 1.0 이상인 자 ●조종사면장 소지자는 우대함	제한없음

教育期間 및 處遇	
●교육기간: 2년(교육기간 동안 숙식제공)	
●처우: 대졸사원에 준하는 처우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 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입사)	

提出書類	
●응시원서(당사조정양식).....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전학년 성적증명서.....1부	

銓衡方法

●필기시험			
과목	일시	장소	
영어 일반지식	6월 17일(일) 09:00부터	이화여고	

●추후 전형절차: 적성면접 → 신체검사 → 비행적성 실기시험 → 면접
- 추후 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應試願書 交付 및 接受	
●기간: 1990년 6월 4일 ~ 6월 12일 09시 ~ 17시(공휴일제외)	
●교부처: 서소문 KAL빌딩 및 대한항공 국내 전 지점/영입소	
●접수처: 서소문 KAL빌딩 및 대한항공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점	

其 他	
●우편접수는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번호 100-608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인사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인사부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전화: 서울 751-7334/7, 부산 463-1031, 대구 423-4237, 광주 232-7770, 제주 22-4207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

은 아침이 되어 잠을 깨도 이런 아침이 아니라며 울부짖을 지도 모른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자신을 오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착각과 환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눈에서 헤어날지를 못한다.

동우가 절망한 이 곳은 벌써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습기가 차 버렸다. 내가 우리 집에서 동우를 몰아낸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내 남편과 아이를 지켰다. 나는 그것을 동우가 썼던 방을 열심히 닦음으로써 확인했다. 그 어둠의 냄새, 눅눅하고 습진 냄새를 없애고도 없었다.

“동서, 여기 있었어. 강(국)을 풀려놓고 하는데 좀 도와 주겠어? 아이고, 네 정신 좀 보게, 멀리서 온 손님에게 일을 시켜라 하네. 그 웃을 구기면 어떻게 할지. 그럼, 쉬게나.”

인방 문을 뚫으며 열더니 형님이 몇 마디 하고 문을 닫으셨다. 식은땀이 등을 흘리고 지나갔다. 친척 여자분들 대부분은 건넌방에 있었다. 그들의 수다가 싫어 아주머니에게 인사 좀 드리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이쪽으로 도피처를 구했던 것이다. 너무 오래 지체했다 보나. 건넌방에서는 내게 대해 얼마나 핏발을 많이 했을까. 형님이 ‘웃’이 아니라 ‘까’였으니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비웃었을 것이 틀림없다. 남편의 장사가 잘 안돼 집을 줄였으면 나의 웃자림도 그만큼 간소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일 것이다.

형님은 한복을 여러 벌 장만해 두고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내가 있는 자리에선 몸매 치렁치렁이 일수이다. 이렇듯 형님은 나에게 하나의 이해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아까 큰 형님의 수리는 말은 진정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나는 태연하게 안방을 떠나 건넌방으로 가버린다.

“그럼,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어요.” 문을 살짝 닫고 걸음을 재촉했다. 건넌방에서는 얘기가 한창이다.

“자네가 소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자네가 소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자네가 소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자네가 소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마냥 저렇게 꾸부림이 있어 일이 손조롭지.”

0월 08

영순이가 오늘 나에게 해준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불현듯 이 내용을 갖고 대하신문에 투고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꿈으로 엮으면 더 좋겠다.

〈스런 것〉

영순이는 크고 작은 개구리들이 실험용 병 안에 들어있는 사자들을 훑어 보다 한숨을 쉬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귀여워해 주시길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는 싫은 것이다.

방과후에 선생님이 자기를 부를 때만해도 우물대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과학생활 전시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다는 것과 6학년도 아닌 5학년인 내가 나가게 된 것이 기쁘다며 사뭇 칭찬을 하였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영순인 발표란 하면 돼. 실험용 개구리도 전부 준비되어 있고 체육 선생님과 내가 준비를 할테니까.”

그러면서 지금 영순이가 보고 있는 개구리의 부패과정이라는 책자를 주었다. 여선생님이 이런 발표 준비를 하시다니 영순이는 예쁜 담임 선생님이 다소 멀게 느껴졌다.

그 다음날부터 발표 준비가 시작되었다. 영순이의 주먹보다 더 작은 개구리들이 이주일 간격으로 실험용 병 안에 옮겨졌다. 수통에서 헤엄치던 개구리들이 흙이 가득 담긴 실험용 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시체로 들어갔다. 그러곤 점점 썩어 갔다. 1번이 적혀있는 실험병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곳엔 거의 흙색으로 돌아가 버린 개구리가 그곳을 자기의 무덤으로 알고 있다. 준비는 거의 체육 선생님이 했고 영순이는 저녁마다 ‘1개구리 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할까’라는 식의 메모만 하던 그만이였다. 4번 실험병도 개구리가 들어 누운 지 11일이 지났다. 이제 3일 후엔 발표 전시회 날이다. 5번 실험병은 흙만 담겨있다. 그곳은 당일 날 죽게 될 개구리 묘이다.

드디어 발표날이다. ‘농촌 어린이로서 평소 어른들이 거름내는 것에 착안하여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을 서두로 이렇게 곧 죽은 개구리는 시일이 지날수록 썩어가 흔적도 없이 거름처럼 돼 버린다는 결론까지 하나의 착오도 없이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다른 전시발표를 보니 번쩍번쩍 전기가 켜지거나 빔빔 돌아다니거나 하여 영순이는 자기 발표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영순이는 작품에 금지를 가져다 애쓰면서 그것들을 돌려 보았다. 영순이는 보고 싶었다. 5번 실험병에 담겨 있는 개구리가 아무래도 볼썽볼썽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혹으로 덮어 두었으니 죽을 겁나. 말하지만 생매장이지.”

체육선생님이 담임선생님에게 말하던 것이 귀에 쟁쟁한데 가장 심한 상태로 죽어있어야 할 개구리는 볼썽볼썽 숨을 쉬는 게 아닌가. 흙을 밀치고 밖으로 나와 그 징그러운 푸른 결절을 발작발작 움직이고 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조그마한 몸통을 확장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영순이는 선생님을 끌어왔다. 두번째로 순서가 잡힌 발표인지만 선생님은 인색이 인질 무렵이다. 선생님은 주위를 살펴 보더니 그 병을 갖고 밖으로 나가신다. 선생님이 손이 떨렸던 것도 같다. 하여튼 선생님이 실험병을 도로 가져왔을 때는 개구리가 숨을 쉴까 거든 후였다.

영순이는 지금 5번 실험병이 눈앞에 아른 거려 어떻게 발표를 끝마칠지도 모른다. 영순이는 그 때부터 선생님의 오른손을 의연했다.

글로 끄적여 보니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형수님이 연

상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작은 형수님 앞에서는 내가 무력해진다. 그 분은 치밀한 논리로 나의 속물을 조인다. 나는 흡사 5번 실험병에 담겨져 있던 개구리 같다. 훌륭한 발표를 위해 다른 개구리들처럼 죽어야 하는. 형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권한다. 그들의 논리도 그렇다. 내가 숨을 죽이고 있어야 국기의 변경, 안정이 있다고 운운한다. 깨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다.

0월 08

강직 선배님은 아직도 차디찬 감방안에 있다. 나를 깨어 있게 해 준 그분.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나의 가슴에 칼로 새겨져 있는데 그는 저들의 손아귀에서 신음을 한다.

“동우, 그렇게 나쁜 생각을 말마라. 너는 우리의 활동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이 고귀한 존재요, 주체적 존재이다. 이것을 자각해야 남도 그렇게 보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고귀하고 주체적인 존재들이 자유를 압박당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못받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직 선배님! 그렇게 의연하게 설 수 있었기에

남의 그러한 모습을 깨우쳐 줄 용기가 생겼습니다.

0월 08

생화(生花)와 조화(造花)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화는 꺾여지지만 결국 시들고 만다. 반면에 조화는 영원히 그 색깔을 간직할 듯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로서의 조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생화를 가져가거나 보낸다. 조화를 보낸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또한 어떤 꽃이 예쁘게 다가가다가 그것이 만악에 조화되었다면 실망을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은 향기도 없고 껍이 시들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보았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전경들과 가루를 벌이는데 학교에서는 웃고 떠들고 버스가 안 들어 온다는 투정을 하고 있었다. 지성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학생들은 지성인들. 조화같은 사람들! 답답하다.

나는 잠전에 직설할 것 같은 기분으로 밖에 나갔다.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지 내 가슴은 벅차게 뭉다. 나는 진한 흙냄새를 맡는 순간 내가 살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매도했던 이들과 나는 이것으로 이어져 있다. 어머니의 흙가슴. 한반도를 밟고 서 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이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동우의 일기장을 덮었다. 나의 폐부를 긁어내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다. 스크린 속에는 뜨거운 정사정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우연히 마주친 연인과의 실의 감촉처럼 회비를 가릴 수 없는 임금같다.

자기에 동우의 커다란 모습이 보인다. 나의 간섭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반쪽의 삶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민다.

슬한 기운이 나에게 물려든다. 이미 나는 높은 한기운에 있었다. 이것은 동우에게만 해당된다고 내가 되었던 그런 높이 아니다. 나의 높이다. 진흙 투성이 나의 몸을 감싸고 나의 눈구멍, 귀구멍을 찾아 꾸적꾸적 들어온다. 개구리 배에서 터진 징그러운 푸른 물도 보인다. 점점 빨아들인다. 가라앉는다. 어디쯤 내가 위치할까. 나는 끝없이 침잠한다.

순간 내 엄지발가락에 힘이 가해지는가

임선소감

임선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 처음으로 소설이라는 것을 써 보았는데 뜻밖의 결과를 맞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응모작품을 들고 제대신문사를 찾던 날엔 비가 억세게 내린 것으로 기억된다. 변변한 습작조차 없는 내가 그런 발표를 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서로 한참을 망설였다.

“되도록 더 할까?”

처음에는 제대신문사 앞을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작품을 빨리 떼내고 싶었다. 그것은 밤낮 나를 괴롭혔고, 나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평

심사위원들의 손에 들어온 최종 응모작품은 모두 10편이었다. 한 편 한 편을 꼼꼼히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응모자들에게 들려줄 말의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단 전반적인 작품수준이 예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응모작들이 소설 미학적 기초가 빈약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응모작의 도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장력의 부족과 부정확한 어휘의 사용, 그리고 소재를 변형시켜 예술적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힘과 인물창조의 미숙성 등에서 총체적으로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기성작가들에게도 ‘소설이란 무엇이며, 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뜻을 잡기 까지는 상당한 습작과 창조적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간단하게 개별적인 논평을 덧붙여 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충분한 심사소감을 들려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돌아오는길〉과 〈귀가〉는 문장력과 이야기의 소설적 구성방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습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키라비탄의 왕〉과 〈비탈소리〉는 흥미롭고 특이한 역사적 소재를 끌어온 것은 좋지만, 그러한 특이한 소재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아쉬웠다. 〈여름날의 이야기〉는 〈소나기〉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이니시이션 소설인데,

했다면 딱딱한 바닥의 감촉을 느낀다. 눈 저 심연에, 아니 내 가까이에 바닥이 존재했다. 내 자신이 반쪽 삶이 아니었는가.

내가 동우의 상태를 놀이라 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영역으로써 눈을 준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 속에 침잠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일어선다고 또 가라앉고 일어서는. 그것은 그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해하기를 거

「화해와 공존」의 원리 펴고 싶었는데 모가난 눈길이었었다

몇몇어를 남의 집 안에 때어놓는 어미 마음이 그려할 지도 모른다.

전공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설을 쓰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나는 소박하나마 이 작품에서 ‘화해와 공존’의 원리를 펴고 싶었는데 애정어린 눈길보다는 모가난 눈길이었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하였고, 내 앞에는 더 험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무서운 눈이 있으므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끝으로 이 작품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들



에게 감사를 드리며, 멀리 계신 부모님께 이 기쁨을 전한다.

「눈지대」, 무리없는 흐름 깔끔한 구성 돋보여

역량있는 작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올리는 훈련이 필요

이런 류의 소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의 치밀성과 절제된 대화의 긴장감이 적절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나 속의 또 다른 나〉는 자아의 이중구조를 서술의 틀로 설정한 나름대로의 이야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약적 논리와 작위성과 우연성, 그리고 이야기의 긴박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장력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신사바위〉는 병렬법의 효과를 살리지 못한 구성력, 그리고 우연성과 작위성에 의존하는 이야기 논리, 절제미를 상실한 대화와 문장 등이 주제를 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아목걸이〉의 가장 큰 결함들은 역시 구성의 산만함과 주제의식의 낙관함, 그리고 등장인물의 갈등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제시되지 않아서 주인공의 행위가 당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눈지대〉와 〈귀향의 땅〉을 기적으로 볼기로 합의했다. 〈귀향의 땅〉은 한 가족의 비극을 물고온 전조조 문제의 주체나 등을 소재로 포착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예술적 장치로 통해 길러내지 못한 점이 끝내 안타깝다. 몇몇 군데서 발견되는 우연성과 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끼여있는 어색한 문장, 긴장력을 상실한 대화장면, 결말에서 사건소설 특유의 감격한 울림과 여운을 창조하지 못한 점들이 불만스럽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소재를 해석하는 힘과 일관성 있게 제목과 주제를 일치시켜 형식화한 나름대로의 구성의 완결성을 평가하여 기적으로 뽑았다.

〈눈지대〉는 응모작 중 가장 세련된 이야기의 흐름과 재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사소한 일상사 속에서 개인주의적 아집과 이기주의적 특성의 늪에 빠져 갈등을 겪는 인물이 건장한 의식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은유적 상징성이 강한 짧은 호흡의 문장으로 독자들을 부담없이 끌어들이면서 무리없는 흐름과 깔끔한 구성을 보여준다. 다만 작품인물 상호간의 갈등양상을 좀더 밀도있게 제시하지 못한 점, 한 두군데 개연성을 상실한 사건의 개입, 그리고 반전장치로 도입된 동우의 일기 부분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이야기의 톤과 짜임새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소재를 포착하는 예리한 감수성과 평범성 속에서 진중한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형식적 등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박미영님과 양병철군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낙선자들에게는 더 많은 격려와 용기를 보내고 싶다. 진정으로 역량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올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가 지망생들은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을 즐기면서 바로 그 소설쓰기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자신있게 걸 수 있는 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金炳澤 (국문과부교수·문학평론가)
安成洙 (국교과교수·문학평론가)

방을 나왔다.

“형님, 강(국)은 제가 끊어지죠. 편한 웃음 빌려 주시겠어요?”

건넌방의 불빛이 잠깐에는 위협적이더니 지금은 찬바람 쐬지 말고 어서 들어 오라는 신호처럼 보인다. 나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끝)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농협이 창립 29주년과 민주농협 출범 원년을 기념하여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우리 농촌, 농업, 농협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2000년대 밝은 농촌의 다짐들로 삼기위한 본공모에 많은 참여요하시기 바랍니다.

1. 논제: (4제중 택일)

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한국 농업의 대응방향
나. 농산물 유통과 농협의 역할
다. 금융자유화와 농협의 대응방안
라. 농협의 농산물 가공사업 참여전략

2. 응모자격: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응모기간: '90년 9월 8일(당일차 소인분도 유효)

4. 당선발표: '90년 10월 10일(당선자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5. 상금 및 시상

가. 상금: 최우수작(1인): 300만원과 상패
우 수 작(2인): 각 100만원과 상패
가 작(5인): 각 50만원과 상패

나. 시상: 당선자에 대한 시상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함.

6. 응모요령

가. 응모매수: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8매정도의 요약문 첨부)

나. 제출처: 농협중앙회 홍보실(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7. 기 타

•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재학중명서 1통 첨부)

• 응모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자의 저작권은 본회 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할 수 없음

• 문의사항은 농협중앙회 홍보실로 연락바람.

(전화: 737-0021~9 호: 7742)

농민의꿈을 소중히키우는
농협중앙회

제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작은 꿈도 소중히하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와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다중중 택일

• 2000년대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른 은행개혁방향
• 경제발전을 위한 가계저축의 역할과 증대방안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당면문제와 육성방안
• 가계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상금 및 시상

• 상금
- 대상(1인): 300만원과 상패
- 금상(2인): 각 100만원과 상패
- 은상(3인): 각 50만원과 상패
- 동상(5인): 각 3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 시상일시와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중명서 1부를 첨부함
2. 제출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당선자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4. 기타 사항은 논문현상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전화 771-40, 교 2596)

언제나 내 곁 같은

국민은행

전국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상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설립 이래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가 산업발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논문현상공모는 국민복지의 최대 현안과제로 떠오른 토지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연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 집 요 강

논 제: 아래중 택일	논 제: 아래중 택일
• 토지의 비옥 및 수급조절가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
• 신도시 건설의 과제와 대응방안	• 제출처: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국토지개발공사 홍보실
• 산지·구릉지의 효율적인 개발모형	• 대상: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담당자 안
• 해의 토지개발 전략	• 당선작 발표
• 저가안정용을 위한 토개공의 역할과 방안	• 시기: 1990. 11월 말
상금 및 시상	기 타
• 상금	• 논문 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바람
○ 최우수작 1인 이내: 300만원과 상패	• 제출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 수 작 2인 이내: 각 200만원과 상패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금지 및
○ 가 작 4인 이내: 각 100만원과 상패	• 모방작 및 타 기관에 제출된 유사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 시상: 시상일시와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공사 소유임
응모요령	• 논문 제출시 재학중명서 1부 첨부
• 자격: 공보마감일(10.31) 현재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대학생 논문 현상 공모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기간: 1990. 10. 31까지(단, 우편접수시는 당일차 소인분까지 유효)	(540-4411)(교2322)

한국토지개발공사

특집

제10회 白鹿文學賞

詩부문 당선

스무살

현 승 준 국어교육과 4

1.

조용히 걸어온 길
앞을 막아서는 스무살의 언덕
노오란 동심의 꽃잎을 떨어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비애의 주황으로 선연히 물들어가던 스무살 언덕
한여름 시원한 그늘
수풀 속 상큼한 향기를 빠져나와
쏟아지는 피악별 아래 느껴지던,
이마에 흘러내리는 아득함과
심장의 탄탄한 박동으로
끈끈하게 땀내나는 소금기

2.

몇 번이고 행구어내도
거품을 일으키면 절망
몸무게에 좌우되지 않는 더러운 때에
휘청이는 다리가 전복되려 하고
앞 못보고 휘둘러 댄 가위질에
질러나가던 꿈들이 신음하며 드러누울 때마다
유일한 나의 희망은
꼬리가 잘려도 바둑바둑
뿔꼬리 우우우 내밀던 도마뱀이다.

3.

살아가기 위한
충실한 동반자, 잠은
굴욕적인 화해의 악수를 청하며
무수히도 연장시켰지, 미적지근한 많은 날들
몸속을 연적는적 휘도는 독소를 안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행복한 잠을 꿈꾸던
꺾어진 가지의 이파리여
사카린 같은 잠은 복음금지
터득하여라
눈 떠서 꿈꾸는 방법을.

詩부문 가작

이 끼

- 그의 젖은 삶을 위한 역사의 흔들어냄 -

고 은 진 국어국문학과 2

너의 절망이 햇살을 찾을 때에도
삶은 내게 있어 항상
젖어 있으라고만 했다.
깊지 못한 뿌리
두껍지 못한 몸체는
광합성으로 꿈틀대고 싶었지만
항상 내게 있어 삶은
구석진 그늘만을 허락 했다.

드디어 목마름은 하늘에 닿은 듯
벗금치는 찬란한 햇살이
문고리를 가만히 흔들었지만
生態의 反亂없이 어쩔수도 없었지
너는 푸르게 마냥 푸르게
빨고 싶었지만 삶은 지낼수록
누렇게 더욱 바래가는
그 무엇이었지.

아아 그렇다
근육이 싹트잖이
호흡이 너를 拒絶하지 않는 한
아스팔트 폭염 그 평발과
친자 확인 않는 한 삶은
조용되지 않은 채
후미진 구석 손전으로
젖을 수 밖에 없다, 너는

너의 절망이 햇살을 찾을 때
머리상은 이끼가 아니라
바람에 맞서 흔들려댈줄 아는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

너는 역새다.

당선소감



살이라는 것이 나하고 인연이 있으리라
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선이라니, 아직은
어슬픈 표정, 얼룩진 육체를 보인 듯한 부
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많은 자꾸만 목에 걸
리고 숨은 고르지 못하여 울통불통 튀어
나온다.

나는 바다를 닮은 삶과 시를 쓰고 싶다.
바다. 만물을 모르고 불만을 씹고 또 씹으
며 불안스러운 울음을 한다. 아픈 상처 물
어 뜰어 하얗게 까무러치면서도 앞으로 나
아오는 그 짙은 몸짓. 완전하고픈 욕구

다. 딱 대신 몸통아리를 떼어줘야 함에도,
매혹적인 뱀의 눈에 빨려드는 개구리처럼
난 시라는 거미줄에 걸려, 기꺼이 걸려들

일룩진 육체 보인 듯 부끄러움 앞서

가 절망과 허무를 놓고, 고통을 키워왔으
나 나의 삶과 나의 시는 인생의 줄다리기
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
하며 싹한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시를 쓰는 길목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게
걸스럽게 입을 벌리고 앉아 떡을 달라 한

어 그 길을 간다.
뾰 위에 터죽대감처럼 얇은 시를 사랑하
며 이제는 기어가는 것을 멈추고 걸을 수
있다면,
끝으로 졸작을 당선작으로 끌어 올려 주
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심판

JEBS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지난 5월 22일자 우리대학신문 「독자의
소리」란에 「JEBS(교육방송국)과 제대신문
에 대한捷言」과, 가입란 「아라·我羅」에
가야제 경품내용에 관한 글이 독자 여러분
에게 얘기거리를 제공했던것 같다. 전자의
주 내용은 「...이 시대의 젊은 지성인으로
나라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함께 있어야할 대학방
송국과 신문사가 우리의 학우들이 가두시
위를 하고 교문진출투쟁중에서 눈물 콧물
이 역사의 현장으로 흘러내릴때 분위기 좋
은 관습이나 외국음악을 틀어 낭만을 찾는
단과가 그러한 일련의 시위들을 신문사는
단순히 모일모일 어떠한 시위를 벌였고 누
가 시위도중 연행되었다는 식의 기사로 일
간지의 소식란 같은 느낌을 어쩔수가 없다
...」는 것이었고 후자의 주 내용은 「자칭 「
교육」방송이라 칭하는 곳에서 소비합력문
화를 보급하고 있다길래 아라구 수소문해
보니, 방송국에서 개교기념행사로 개최하
는 아라가요제에 걸린 총상품가격이 약 2
백여만원에 달하고, 학교의 후원으로 가수
를 초빙, 이에 학우들에게 입장료까지 받
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학술에 대한 지원엔
인색한 아라인들이 한심스럽기 까지해...」
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원근은 대학을 선포해야할 사명을 띤 대
학언론이 일반지성언론과는 달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일반지성방송의 각종
오락프로그램에 특권사들이 스폰서로 등
장하여 자사의 제품을 출연자나 관객들에
게 선전용으로 주어 파소비중조를 조장한
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다. 그렇다면 「대학방송이 주최하는 가요
제(가요제를 개최한다는 자체부터가 건강
한 대학문화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건만)
에서는 이의 극복을 위한 몸부림은 못 보
일망정, 일반지성방송국과 다를바 없이 오
디오등의 사치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오

려 대학내에 파소비중조를 인입시켜서야
되겠는가?」라고 쓴 내용이 과연 어떤부분에
서 문제가 되는가?

게다가 JEBS가 주최한 아라가요제에 대
학당국의 지원을 받고 왔던(대학당국이 이
런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지원했다는게 한심
스럽지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하 노찾
사)」이, 그들의 행각에 대해 요즘 육지부
타대학가에서 일고 있는 여론 내용들 일부
가 제대신문 「독자의 소리」란에 게재된 것
을 직·간접적으로 보았는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공연에 앞서 「제대신문에서
우리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를
쓴 처사에 분노한다」는 식의 말들을 했다.
이것은 강원도 제대대학에서 「노찾사」가 민
중노래를 팔고 돈을 너무 벌며 그들을 「돈
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한 것을 「독자
의 소리」에서 인용하여 투고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분위기를 자신들의 발전
을 위해 결연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을 했더니 한심하면서 죽은
한 생각을 접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론이란게 오늘날과 같이 각
종정보채널이 발달한 사회에서 비록 공기
처럼 가볍고 일시적인 分衆의 의견처럼 보
일지는 모르나: 좋은 삶든 엄청난 힘을 발
휘했던 사례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자의 소리」란은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여론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스럽고 비판적인 토론(토의)이 이루어
져야 하고 둘째,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JE
BS는 이러한 언론에 대한 상식을 이변 기
회에 각인하고 대학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학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範]

심사평

「스무살」, 삶의문제 소박하면서도 진지하게 처리

백목문학상 詩부문에서는 도합 21명의
응모자가 79편의 작품을 내 놓았다. 대체
로 昨年이나 다름없이 저조한 편이었으며,
그題材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
기 때문에, 가령 흔히 등장하고 있는 「사
랑」의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예외없이 그
에 수반되어 나오는 「술」의 이야기가 아니
면 달리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단순하고 경색되고 단조로운 인상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 우리의 모든 캠퍼
스가 획일적인 社會的 關心으로 오염되고
있었던 이면에서, 본연의 건전한 大學文化가
정착되지 못하고 精神의 황폐화를 초래해
가고 있는 단면을 잘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라

든가 사랑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省察
에서 우러난 몇몇 작품으로 하여, 금년도
詩부문 文學賞의 의의가 상실되지 않았음
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선, 예심을 통과하여 재검토의 對象이
되었던 작품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현승준(국어교육과·4)의 「스무살」외
고은진(국어국문·2)의 「이끼」외
유승수(영어교육·4)의 「겨울바다」외
김민아(국어교육·4)의 「꼭사람」외

이상에서, 현승준과 고은진의 詩는 삶의
문제를 고요한 명상과 관조에 기초하여 抒
情의 처리를 함으로써, 소박하면서도 진지
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으며, 이
와 대조적으로 유승수와 김민아의 詩는,
사랑의 문제와 관련하여 意識上에 투영된

심리적 드라마를 知的 발상에 의하여 솔직
로써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 趣向들을 각각
보여 주었다.

물론, 보다 완벽을 기하려면 詩語의 체
용과 시행의 취급, 이미지와 詩想의 전개
등에 있어서 아직은 미숙한 점들이 상당히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절제된 感情과 作者의
수준에 어울리는 내용의 진솔로써, 서정적
주지적 경향의 特性들을 무난히 부각시켰
다는 점을 중시하고 하나의 긍정적 試圖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예견되는 장래성에 대
한 격려의 뜻에서, 일단 當選과 佳作의 입
상작으로 4편의 작품을 모두 발표하기를
결정하였다.

앞으로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연해 두고자

한다.

글, 또는 글을 쓴다는 것은 불가분으로
生活와 상관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의 생령
은, 어떤 의미에서 古典性과 浪漫性의 지
향에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問題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검토와 調和가 지속되는 가운데, 필연적으
로 수반되는 깊은 사색과 강렬한 열정, 理
想과 좌절, 고통과 비애, 그리고 歡喜와
같은 다양한 순수한 국면의 體驗들이 어
떠한 형태로든 진실하게 기록되어 나온다
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다.

姜通源 (영문학과교수·시인)

文忠誠 (독문학과교수·시인)



대우가죽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논지밭고 농우(農牛)를 보살피라
뜨물에 풀먹이고 이슬 풀자로 뜰겨
그루같이 모 심으기 제 힘을 빌리리라...’

농가원령가의 한 귀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람 때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 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둘일수 없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온지 어언
수백년. 그동안 우리들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염원을 갖고 있었
을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
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88년 「6·10 남북학
생회담」이 제기되면서 국민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만 있
던 통일에 대한 염원이 구체화되
기 시작했다.

비록 당시 학생회담이 성사되지
는 못했으나 온국민에게 통일은
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런 열기는 결국 통일운동의 물
꼬를 더 임수경학우의 평양축전참
가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에 통일에 대한 열정·용기 그
리고 신념을 이 땅의 자주·민주·
통일의 그날까지 온몸가득 간직하
길 바라는 마음에서 88년 당시의
사진들을 모아 엮었다.
【역은이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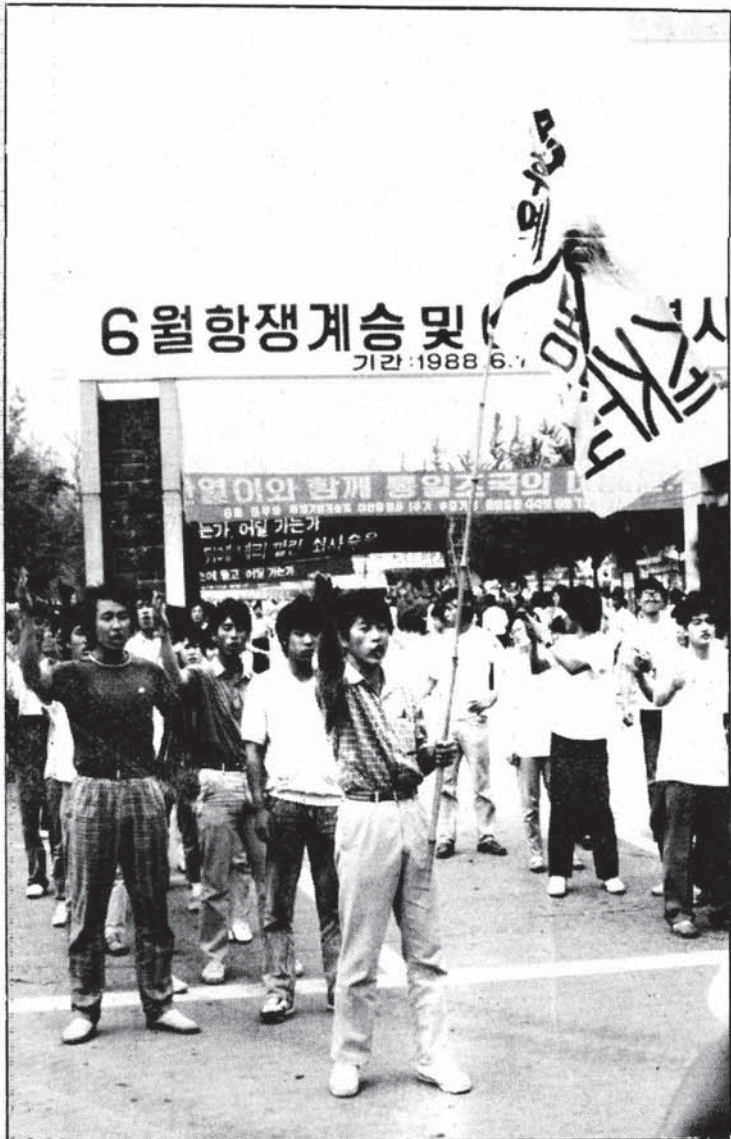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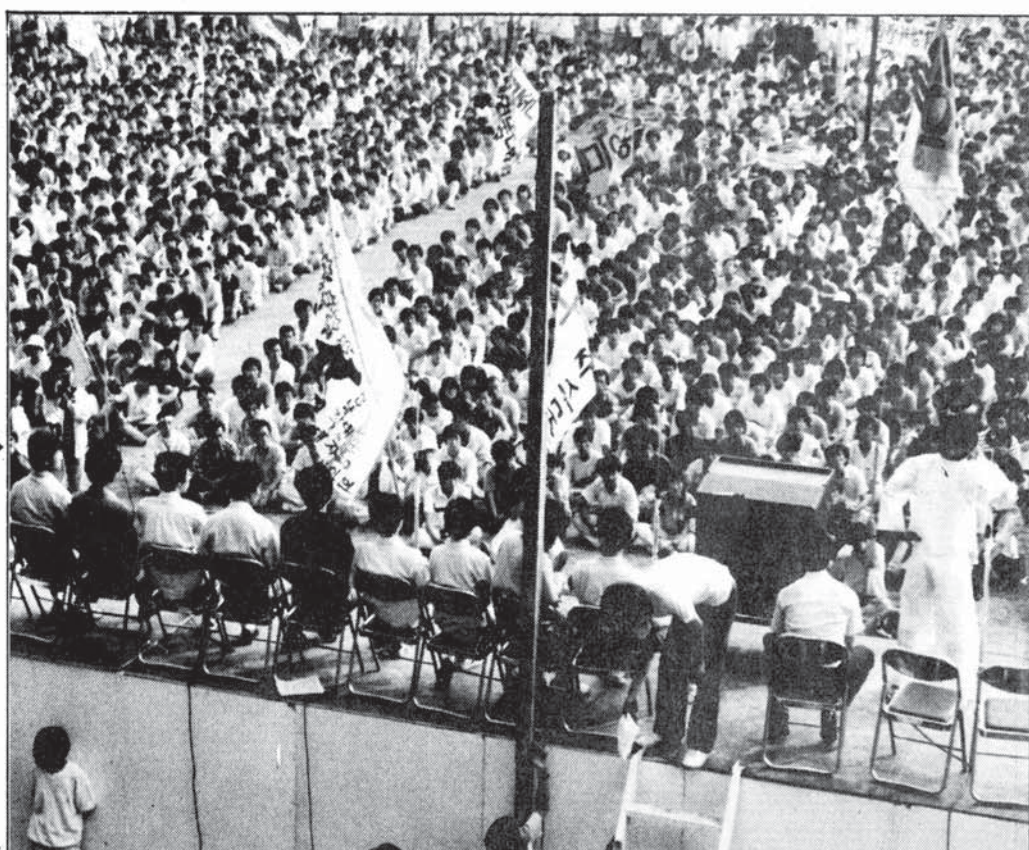


◇ 우리 가야한다!

경찰의 원천봉쇄망을 뚫고 연세대에 도착
한 학생들이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
한 백만학도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 자, 이제 우리 출정이다

9일 도착, 철야농성을 한 1만여명의
학생들은 10일 오전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판문점으로 가기위한 대망의 출정식
을 가졌다.



◇ 4·3의 후예들이여

조국통일의 대장정에 나선 본교 통일선봉대원들의 당당한 모습.

◇ 또 다시 최루탄은 난사되고
통일을 갈망하며 연화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시 최루탄의
압이 가해지고 있다. 동지여! 물려서지 말자! 우리의 대안은 그
구도만을 수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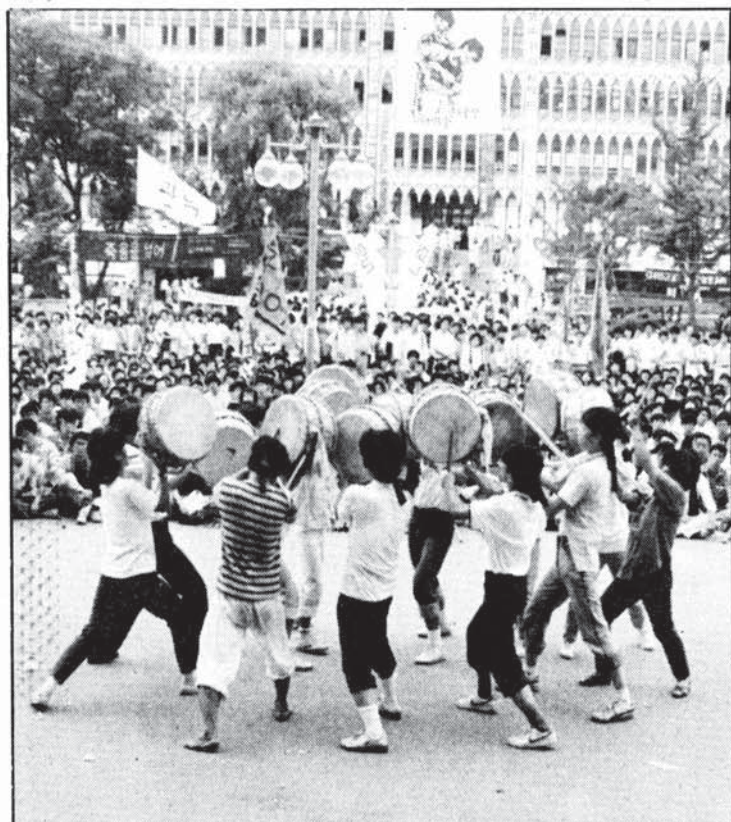


◇ 조국통일하자는데 원천봉쇄 웬말이나

출정식후 판문점으로 향하던 학생들은 재 연대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경찰
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 어머니... 누가 당신에게 이토록 처절한 슬픔을 강요했
습니까. 누가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는 통일
의 길을 가로막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눈물을 거두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가 기필코 통일을 안아 올 것입니다.



◇ 통일의 염원을 북소리에 담아

사진: 김 호 천 (본사 前 사진부장)

◇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수 없다
연세대에서의 판문점행이 원천봉쇄되자 학생들은 각기 흩어져 서울
역·홍대입구·가리·명동 등지에서 가발전 투쟁을 전개했다.



□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근로봉사통해 신뢰감부터 얻어야

농민과 하나됨을 위하여 농촌현장에서 농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90하계 농촌활동이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덕, 한경, 대정읍에서 3박 4일간 시작되었다.

전체사회 변혁운동이 한부분으로서의 학생운동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농촌활동의 목적은 첫째, 제주지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유기적인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둘째, 학생들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연대의 장으로 활용하며, 셋째, 대중적 토대가 미약한 읍면단위 농민회를 지원하고 도농의 건설을 앞당기며, 넷째,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의 주체들에게 미약했던 선전·홍보활동을 통해서 각 주체들에게 연대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농민과의 함께 제충협 차원에서 농촌위가 중심이 되어 실시된 이번 농촌활동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들이지는 못했지만 사설이다.

이처럼 농촌활동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사전홍보활동부족으로 참가인원이 소수에 그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개읍면을 대상으로 한 이번 활동은 참가자가 170여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근로봉사나 홍보활동등 세부적인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였고, 근로봉사에만 국한된 활동을 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한경면인 경우 보리수확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67명 인원으로 청수리와 낙천리 2개지역에 근로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농촌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홍보인원 부족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적 제약과 가져와



○ 지난날 28일 한경면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농민들이 함께 웃고 있다.

농촌봉사활동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을 연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사설이다.

둘째, 참가지역에 대한 이해부족과 준비부족을 들 수 있다.

농촌활동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즉 인구 및 가구,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으로 좀더 가까운 대화의 거리에서 농민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현실을 상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농촌활동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근로봉사 대상가구를 신중히 검토하지 못해 꼭 필요한 농가에 근로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였음을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한 근로봉사의 현장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서로가 공유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대감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부족과 접근방법 미숙으로 성과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점은 농촌활동에 참가하는 개별주체들의 사전 지식습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또한 시기와 기간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덕면과 대정읍인

경우에는 가장 일손이 필요로 하는 기간을 놓쳐버렸고, 3박 4일 기간동안 농민과의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근로봉사를 통해 농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나서야 제반활동이 가능한 상황이고 보면, 근로봉사기간과 병행하여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과 기간도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위와 대상지역농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부족은 농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농민학생공동추진으로 도농준위의 협력체제를 지니고 연대를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주체별 역할분담미비, 사전협의 부족으로 연대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또한 대상지역 농민들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해 반대에 부딪히는 출발을 놓는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넷째, 농촌활동에 참가하는 개별주체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준비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봉사가 농촌활동이 기본적인 활동이고 보면, 보리베기에 참가하면서 전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농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일이나, 힘이 든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농촌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농민과의 하나됨을 위해 참가하는 만큼 성실하게 끝까지 참여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농촌연대의 장을 여는 요인이라는 것을 재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농촌활동은 몇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농촌의 현장에서 하루 10시간이상의 근로봉사를 통해서 농민들과의 신뢰회복과 연대감을 고취시켰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 하겠다.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과 함께 기쁨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유익했던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보리 한뭉치를 들지 못해 한숨짓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흘리던 어느 여대원의 모습에서, 다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들이지 못해 눈물짓는 농부의 모습 때문에 자정까지 보리베기에 참석하여 흘린 땀의 의미에서,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에 근로봉사에 참가하면서도 불평 하나 없던 모습들은 분명히 농촌연대의 장을 여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하겠다.

1930년대 '민중속으로'라는 브나로드 운동으로 시작된 농촌활동은 계몽운동과 이어 60~70년대초의 항로개척단운동과 서울중심의 농촌봉사활동으로 이어져 80년 이후의 파농촌활동으로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농촌활동은 농촌연대의 장을 여는 활동이다. 농촌활동은 3박 4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작지만 소중한 후속활동을 행해야 할 것이다.

농촌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중한 경험과 감동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보다는 계속이어지는 실천으로 행해져야 진정한 농촌활동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며, 농민과 하나되는 그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오철웅 사회학과·4

五月의 閑想

신나는 일로 바빠야 한다



李 淳 珩

“바쁜 천사를 상상해볼 수 있을까?”

라는 누군가의 물음이 기억된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라고 배워왔던 우리에게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가 계속해서 말한 것은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 악명을 남긴 정치가들이 민중에 오월의 하늘에 떠오르는 저 구름이나 감상하면서 한가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와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기에 천사는 왜 한가한가의 의미를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거나 평화롭다는 표현을 쓸 때 받는 느낌은 동적인 것이기보다 다분히 정적이다. 어떤 여유, 또는 한가로운 인식이 있고요함이 그 상태속에 간직되어 있는 까닭이라. ‘모도’라는 제목의 동화적 소설을 읽고 격 감동을 받았던 것도 우리가 턱없이 바쁘고 쫓겨서 정말 일회적인 생 속에 표현되어져야 할 어떤 소중한 관심이나 배려를 잃어버리고 현대인의 비참함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깨워주었던 때문이다.

바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다만 ‘무엇’을 위해 바쁘게가 문제일 것이다. 삶의 본질적인 것의 추구를 위해 바쁘게가 보다 주변적, 육신적, 영예적인 것의 관행으로 바쁘다고 하면 이는 다시 한번 충분히 재고해보아야하지 않을까. 바쁨의 그 목적이 영달이나 그것을 위한 투쟁일 때 그건 정말 중대한 문제요, 타인보다 많은 ‘소유’를 위해, 또는 누군가의 소유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 또는 파괴, 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쁜가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새벽 별빛이 운중에 바쁜 이북의 주민들을 떠올려보면 정말 딱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만일 남조선인민의 해방을 위해 길을 휘둘러 바쁘게가 보다 그 길을 부수어 농기구를 개선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일로 바쁘게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 복된 민족이 될 것인가? 누구를, 어떤 국가를 탄압하려고 규정하고 민중을 해방해야 한다고 충혈된 눈빛,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나는 언제나 마음이 언짢고 더는 노여움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념의 조악함이나 편파성을 두고 말하려는 것이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한 행동에 봉사가 뒷받침되지

빈번히 생겨나고 있는 모든 비극이나 폭력에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내 자신안에 내재해 있는 아들 요소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때, 인간은 그 때 비로소 해방과 행복과 평화라고 불리우는 어떤 삶의 형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본노나 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이 물음에 F학점을 받은 사람은 없다. 지위, 명예, 부, 권력을 얻으려는 집요한 인간의 욕망이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원인을 모르지 않을 것임으로.

우리는 무엇때문에 바쁘는가? 이것들만이 삶의 구체적인 절실한 목표라고 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바빠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악마는 한가하지 않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바쁨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이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본질적인 것, 가치있는 것, 봉사적인 것들과 유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사악한 악마의 행태에 통하기 쉽다. 부가 소중하게 되면 턱없이 바빠질 수 밖에 없고 그것에 조금씩 거뒀다. 허영, 질투등의 사악한 행위와 자신을 분리하기 어려워진다. 바빠도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의 추구와 유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은 신나는 바쁨이어야 한다.

바쁨이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할 때 인간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악마에 조종되는 결과를 불러들이게 된다.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새들의 노래소리가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 꽃들은 왜 활짝 피어났는지 그 미소로 아름다운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실현하며 그 아름다운의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에 우리의 깨달음을 두고자 할 때 어쩌면 그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연은 태고부터 여태껏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는 삶을 표출하며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인간의 생존에 공여(공여)하고 있다. 인간만이 늘 바쁘게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남에게서, 자연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그것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 같다. 오월 하늘의 아름다움이 주는 질서와 평화까지도 요란한 구호와 투쟁으로 버리고 있는 오월의 하루는 써바아 별불없는 일로 또 한번 바빠지고 있다.

사범대 부교수

계신간

「비키니섬의 거북이」

—김학 지음

1946년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장이던 이후 비키니섬에 살던 거북이들은

방사능의 오염으로 인해 바다가 아닌 산으로 옮겨야 많은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비키니섬의 거북이」는 그후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는 뜻으로 상징되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상징을 기저에 깔고 고민하는 지성인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비문헌학과 문헌학과생의 길

등을 다룬 전 9막의 희곡을 시작으로, 「나의 인생관」에서 작자는 우리 주의를 감싸고 있는 모든 불합리의 문제에 대해 X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해 주는 확실한 수단으로서의 X를 국민 개개인의 머리속에 인식시키는 것이 지성인의 역할이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가람문화사·3천5백원)

“제주신라아르바이트생 모집”

땀흘린 뒤의 보람 / 이것이 바로 지성의 낭만이 아닐까요?
오는 7월 그 웅대한 모습을 선보일 제주신라에서
진정한 知性的의 의미를 찾아 보십시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및 인원	응시자격
· 객실: 남·여 〇〇명	1. 재학중인 남·여학생
· 식음: 남·여 〇〇명	2. 용모 단정한 자
· 헬스클럽: 남·여 〇〇명	3. 외국어(영어, 일어) 우수자는 우대함.

2. 전형방법

○ 1차 면접후 확정(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3. 제출서류

- 1) 지원서(당사소정 양식) 1매
- 2) 재학증명서 1매
-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1) 기간: '90. 6. 9 ~ 6. 16
- 2) 교부: 각 대학 학생처, 학생생활 연구소 등 취업알선 부서
- 3) 접수: 제주신라 관리팀 사무실(7F)
- 4) 지원서는 본인이나 직접 접수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5) 접수시간: 매일 09:00~19:00 (일요일도 접수함)

5. 급여 및 처우

- 1) 1일 8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천오백원(누계 근무시간 500시간 초과시마다 10% 가산 지급함)
- 2) 희망사원 생활관 무료제공
- 3) 출퇴근 교통제공

6.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7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임.
- 방학기간중 근무자는 학기중 주말 PART-TIMER로 계속 근무가 가능함.

7. 기타 문의사항

- 제주신라 관리팀 인사담당 (☎ 33-4466·2813)



CHEJU SHILLA
HOTEL SHILLA CHAIN